



정성근 마리아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 ‘사랑의 날개’로 몽골에서 사랑이 계속 이어지려면...

몽골 제2의 도시 다르항은 인구는 95,043명(2010 다르항 집계) 가량 되며, 울란바타르에서 약 200km 북쪽으로 떨어진 철의 도시이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몽골의 기차가 정차하는 역이기도 하여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이곳을 약 5년 전부터 한국의 이호열 신부님이 살레시오수도회의 베트남관구 소속으로 청소년 교육사업과 성경을 몽골어로 번역을 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도 6년 전부터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는 3년 전부터 전공의와 전임의들과 같이 다르항 제1병원에서 백내장수술과 사시수술을 실시하였다. 첫째에는 다르항 제1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수술현미경과 국내에서 빌려간 초음파유화술 기계를 가지고 열악한 수술실 환경 속에서 수술을 진행했으나, 2011년부터는 국내에서 기증받은 초음파유화술 기계와 새로이 협회에서 마련해 준 수술현미경으로 그동안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백내장수술에 필요한 기구는 우리나라 개인의원에서 시행하는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라 백내장수술을 전문화로 다르항에서 유일하게 백내장수술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1) 실질적인 도움

많은 해외의료봉사단체가 복용약, 안약이나 미리 도수가 정해진 돋보기안경을 나누어 주며, 환자 수에만 연연하는데 이 단계를 넘어 환자의 수는 적지만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 혹은 더 나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주로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초등 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장 시기에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안경을 처방하여 국내에서 제작하여 다시 몽골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보내어 착용하게 하여 약시를 예방하게 해 주는 것이 소수 어린이를 실명에서 구해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 2) 체계적인 구조

협회의 소수 직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온 방대한 사업을

하러니 각 직원에게 과대한 업무량이 주어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축소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온 후에는 철저히 평가하고, 분석하여 정리하고, 기록하여 차후 봉사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겠다. 또한, 체계적으로 일을 분담화하고, 지침·매뉴얼 등을 만들어 놓아 누구나 처음 일을 맡아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 3) 지원 봉사자 교육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진료일 수는 하루 혹은 이틀로 구색만 갖추고, 주로 선교를 목적으로 하여 의료봉사라는 빛을 퇴색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소한의 진료일 수도 4~5일은 되어야 한다. 지원 봉사자들은 참여하게 된 동기, 계기가 다 같을 수 없으나, 마음은 사랑 나눔 한가지 일 것이다. 따라서 의료봉사를 가게 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쉽게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일을 하지만 이들에게 사전 교육이나 피정을 통하여 봉사하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과 우리는 서로 문화가 다를 뿐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들보다 환경이 조금 좋을 뿐이지 그들에게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 4) 홍보문제

몽골, 다르항에서의 의료봉사가 백내장수술은 3년째, 사시수술은 2년째, 학교 보건교육 및 검진도 2년째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협회 회원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가톨릭의료협회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또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음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적극적인 봉사자와 더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랑의 날개는 항상 초심으로, 처음처럼 만든 목적, 가톨릭 정신 및 이념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몽골에서의 사랑이 세계로 이어져 나갔으면 한다.